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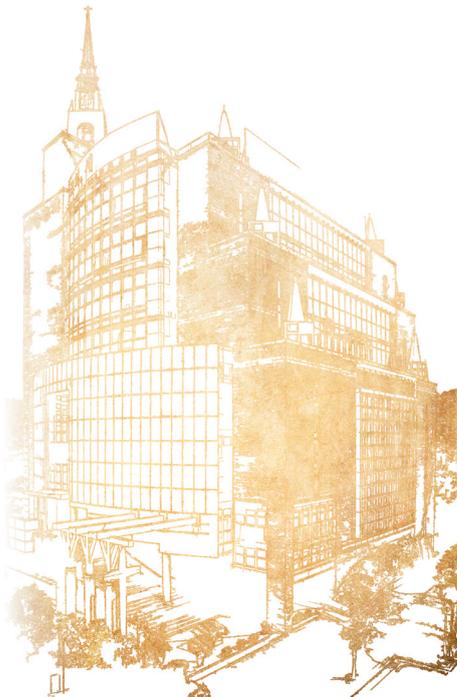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모습들

(호세아 7:1 - 16)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할때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1절).

이스라엘의 안과 밖은 완전히 도둑질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 앞에 무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네가지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화덕같은 죄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뿐이니라"(4절).

화덕은 떡굽는 가마솥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 화덕과 같이 달아 올랐습니다. 이것은 고멜이 가정을 버리고 다시 창녀굴로 돌아가 간음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살인과 도적질과 속임과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네 가지 죄가 만연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았던 그 죄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3절).

왕권을 이어야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왕하15:10). 그리고 살룸은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왕하 15:14). 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왕하 15:25).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죽이는 일이 계속되어 20년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6절).

이스라엘의 죄는 불꽃 같아서 잘못된 정열에 의해서 사회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음하는 죄는 정치적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보고 빛을 불지, 혹은 어두움을 불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8절).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와 야합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병은 영어로 flat cake, 납작한 케이크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만 익고 한쪽은 익지않은 것으로 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용지물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

께서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9절).

이방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조차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지한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속이 익지 않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3. 어리석은 비둘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11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연약하면서도 순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비둘기는 잘 속고 무감각해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앗수르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4. 속이는 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앞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16절).

'속이는 활'이란 과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들이 영똥한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속이는 활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신자이나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는 속이는 활입니다. 과녁을 향해 가던 화살이 빗나가거나 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죄라고 합니다. 속이는 활은 꺾여 버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

이스라엘이 살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

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해 부활절은 4월 16일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1, 2, 3부 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 영상예배, 유·초·중·고등부·사랑부 예배와 청년부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교회에 못들어 가게 한다고 무분별한 일부 성도들이 거짓말을 유포하고, 또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여 일부 성도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거나 돌계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

중에 교회에 전화를 걸어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가 없는지를 문의해 오십니다. 다만 박노철목사가 교회에 들어올 경우 지난 1월 15일과 같이 무단으로 강단에 올라가거나 측근자들의 소요로 예배 방해가 우려될 뿐입니다. 서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따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부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시므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주 주일예배 설교는 경천교회 원로목사이며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인 김순권목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서울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한 혼란 가운데로 빠뜨렸던 재정비리에 관한 루머는 오정수장로에 대하여 홍성주의 6명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5건에 대하여 모두 2월 16일 무혐의처분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며 현재 서울교회 문제의 본질은 재정비리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교회 회복을 위한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올림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 교직은 평등, 위계는 인정(1)"
- 직제, 좋은 교회 만드는 도구 -



최윤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조직신학)

보편 교회에 속하는 우리교단의 '대한예수교장로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는 명칭이 보여주듯, '장로회(長老會)'(딤후 4:14; 장로의 회, the presbytery, the council of elders)라는 교회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교단은, 좁게 말하면 '장로교회(長老教會)'에 속하고, 넓게 말하면 '개혁교회(改革教會)'에 속한다. 장로교회의 정치, 직제, 권징(치리; discipline)은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 '장로교회의 직제'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다음호에서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일상적으로 '교회의 직제'(office; 독어-Amt, 네덜란드어-ambt) 또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교단 헌법은 이것을 '교회의 직원(職員)'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4종직인 '목사, 교사(doctor; 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의 목사), 장로, 집사'를 주장하고,

장로교회는 크게 장로와 집사라는 직제를 주장하는데,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이 주장한 두 장로설을 받아들여 '목사로서의 장로', '치리 장로', '집사'로 세 직분을 구별한다. 우리교단은 미국장로교회의 직제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직제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 향존직(목사로서의 장로, 치리장로, 집사)과 임시직(전도사, 권사, 전도인, 서리집사)을 구별하고, 목사로서의 장로와 치리 장로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제정했다. **직제 유용론(有用論)**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의 직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직제 절대론(絶対論)의 입장이다. 직제 절대론의 입장은 로마 (천주)교회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교사로서 말할 때, 그의 명령과 말은 신앙과 도덕에서 전적으로 무오(無誤)하다. 여기서 직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둘째는 직제 무용론(無用論)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부 '파라-교회(para-church)' 운동 속에서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는 '만인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만이 주장되고, 다른 직제는 무용하고, 불필요하기에 전적으로 배제된다. 셋째는 직제 유용론(有用論)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기독교(개신교)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특히 장로교회로서의 우리교단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직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교회 본질과 교회 구축과 성장 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하며, 유익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특별 직제** 비록 마틴 루터를 비롯해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Martin Bucer)와 칼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강조해 16세기 중세 로마(천주)교회의 직제 절대론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직제 유용론의 입장에 서서,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함께 특별 직제도 주장했다. 루터의 경우, 어린 아이도 만인제사장직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회중 속에서 설교하고, 성례전을 거행하고, 치리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훈련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임직된 직분을 받은 자가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했다. 칼뱅의 경우 교회의 직제는 교회의 본질(esse ecclesiae)은 아니지만, '좋은 교회(bene esse ecclesiae)'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수단으로써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함께 교회의 특별 직제에 속하는 4종직(목사, 교사, 장로, 집사)을 주장했다. 우리교단도 모든 교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정의함으로써,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를 주장함과 동시에 특별 직제(향존직과 임시직)도 강조하고 있다. (다음주 계속)

-한국기독교공보 3056호2016.08.27(토) 발췌-

차고 넘치는 유년부 되게 해주심에 감사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2월 5일, 3주간의 휴교를 마치고 다시 교회학교를 시작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에 주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102호를 가득 메운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맡겨 주시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원에 비해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특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7층의 여유 있고 넉넉한 공간과 환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에게 102호에서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위기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만큼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 적이 없었으며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기에 교회학교가 다시 부흥 발전하여 7층이 차고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되고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가 지금의 교회학교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발전할 교회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배지킴이



김현준 집사 (초등부 부장)

요즘 교육1국은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학년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바뀌면서 학생 신상명세를 확인하는 도중 너무나 예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교회 직분란에 작고 흐트러진 글씨로 쓴 아이의 대답은, “서울교회 예배지킴이!!!”.

직분란에 당연히 적혀있어야 하는 집사, 권사의 용어가 아닌, 신조어 “예배지킴이”의 직분을 보면서, 제게는 옅은 미소와 함께 주일마다 예배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1층의 ‘예배지킴이’들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서울교회가 시작되고 삼척에서의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던 25~6년전의 기억이 되돌려집니다. 지금 교회 정문을 지키고 봉사하는 청/장년들도 그때는 유.중.고등부의 학생이었고 함께 수련회 찬양을 준비하며 울동을 만들고 하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웃고 떠들며, 서로의 연애사를 까발리고, 철 모르고 크는 것만 같더니... 이제는 어엿한 청장년의 건장한 모습으로 또 다음 세대의 예배를 지켜주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전하는 든직한 예배지킴이들, 서울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네요.

예배지킴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서울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교육부서를 대하면서 서울교회의 미래, 성장을 꿈꾸게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친구들의 손에 이끌리어 교회를 오가고 있지만, 나의 아빠, 엄마가 교회를 지키는 ‘예배지킴이’임이 자랑스럽고, 또 20여년이 지나 청장년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교회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되어 “예배지킴이”가 되어 있을테니까요.

지난 주(19일)에도 교육 1국 학생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교육부서 전체로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100여명의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적인 모임과 부흥보다는 이보다 앞서 서울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 찬양예배까지 예배를 지켜주시는 “예배지킴이”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 보호 가운데 저희 교육부서의 학생들은 건강하고 예쁘고 씩씩하게 성장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배지킴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사수하는 “서울교회의 예배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니” (룻기 1장 1절b)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



정현구 집사 (고등부 부장)

올해는 어느때보다도 각부서의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적과 대입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고등부를 책임 지는 부장의 직분을 맡게되어 마음의 짐을 상당히 느끼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올바른 신앙관 형성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대치동 학원 중심기에 서울교회가 있어서 학생들의 학원 스케줄에 교회학교 교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학생들과 교회행사를 진행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를 포함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차 우리 서울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기에 우리 교사들은 말씀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자세를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행일치의 삶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학교가 많이 침체되는 이유는 화려한 것만을 쫓아가다 기본적인 것에 소홀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정성과 기도로 아이들을 잘 훈련된 군사로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과 학생사이에 신뢰와, 학생과 학생사이의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등부는 말씀과 신행일치의 삶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기본임을 가르치고 친교로써 교회학교 오는 즐거움이 더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를 잘 다듬어 놓으면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되며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1절 기념

크리스찬 여성, 유관순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좌)과 수감기록증(우)

최근 일부 교과서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유관순 열사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사이에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유중권은 감리교도였으며 구한말 유빈기, 조인원 등과 함께 흥호학교를 세워 국권회복과 민족계몽운동에 나섰던 선각자였고, 어머니 역시 선교사들을 통해 독실한 신앙심과 근대적인 여성인식을 갖추었던 신여성이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유관순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가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익혔고, 생활 속에서 식민지 체제의 부당함을 체험하면서 뚜렷한 민족의식을 가진 크리스찬 여성이었다.

1916년, 그녀는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학했고,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 무렵 식민지 조선의 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병탄 이후 일제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요하는 등 동화정책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판 없는 구금과 구타가 일상화되었다.

유관순은 당시 이화학당에서 조직한 비밀결사 이문회(以文會)를 통해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전하고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나서기로 맹약했다. 3월 1일 드디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사람들이 학교 앞을 지나가자 유관순은 여섯 명의 동료학생들과 함께 담장을 뛰어넘어 시위에 동참했다. 당시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교문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3월 5일에 벌어진 남대문역 시위에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강기덕, 김성국, 김원벽, 한위건 등 학생대표들이 앞장선 가운데 이화학당의 유관순과 정신여학교의 이애주 등 서울 지역의 남녀학생 대부분이 참가했고, 고종황제의 인산을 마친 다음 기차 편으로 귀향하려던 지방민들도 대거 합세했다. 학생들은 총탄에 맞아 피 흘리는 친구들을 업고 흩어지면서 저들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분노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치열한 분노가 들끓으면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유관순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유관순은 비록 17년의 짧은 생을 살고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서 이틀 뒤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과 월터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이화학당의 모든 외국인 교직원들이 나서서 유관순의 억울한 죽음을 세계만방에 알리겠다고 항의하자 형무소 측은 마지못해 시신을 내주었다고 한다.

유관순열사가 이토록 어린 나이에 조국과 동족을 향해 치열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마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유관순열사를 돌아보며 크리스찬의 조국 사랑을 상기해 보자.

(유관순 열사의 유언)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편집부)



오늘 교구총회 - 3부 예배 후 101호 -

교구위원회(위원장 : 양춘경 장로)는 오늘 주일 3부예배 후 101호에서 교구총회를 갖는다. 교구총회는 현재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만큼 교구 일꾼들은 빠짐없이 교구총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참석 대상은 교구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이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2일(목) 한국장로교육원 제19기, 20기 합동개강식 특강을 한다. 4일(토) 사랑의쌀운동,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한국기독교학술원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입단 : 16교구 김동수 성도(김진락 성도·정윤순 집사 장남) 경기도 광주시청 소속 펜싱팀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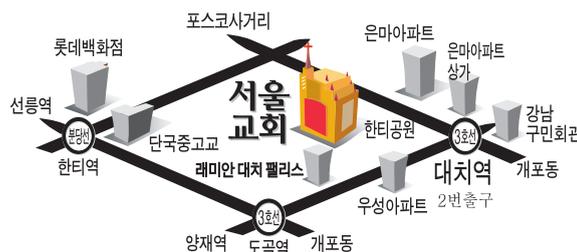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3월 1일(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 제98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